



1단원 - 통합적 관점

1. 시에스타가 가지는 긍정적 의미

시에스타는 성자 이시드로(Sab Isidro)가 창조한 것으로 농부들의 수호신 이자 마드리드의 수호신이다(마상영, 2007). 여름철 뜨거운 태양 아래 농부들이 열사병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시작되었으며 현재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현대인의 웰빙문화와 관련된 중요한 인류·사회적 관심사라 할 수 있다.

시에스타는 의학적 처방으로 활용될 만큼 그 효과가 뛰어나다. Esticill박사의 말에 의하면 시에스타에 적용하지 못한 영·유아 어린이들은 악몽이나 몽유병과 같은 질병을 유발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기본적인 면역체계를 회복하고 각종 스트레스 및 질병들을 예방함으로써 육체적 정신적 피로를 풀어준다. 이는 결과적으로 긍정적이고 활기찬 삶을 영위하는데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2. 시에스타의 논쟁이 뜨거운 스페인

최근 스페인에는 시에스타를 둘러싼 논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식당들이 새벽 1시까지 영업하는 나라는 합리적이지 못하다. 영업시간을 계속 늘리는 일은 미친 것이다(안착희, 2024).” 시에스타의 관습과 소브레메사(sovremesa: 식후 식탁에 남아 대화를 즐기는 시간)이 더해져 식당들이 영업을 일찍 끝낼 수 없는 조건이 되어버렸다. 특히나 최근에는 인건비의 상승과 더불어 심야 교통비, 오랜 영업으로 인한 스트레스 및 건강 악화 문제는 스페인 사회에 중요한 쟁점 중 하나이다.

3. 서머타임의 도입과 실효성 논쟁

1차 세계대전 중 전쟁물자를 절약하기 위해 영국, 독일, 미국에서 처음 도입되었다. 서머타임이 효과적으로 쓰일 수 있는 위도 30도 이상 지역을 기준으로, 2010년 기준 OECD국가 중 27개국이 시행 중에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1948년 정부가 수립되던 해 도입 및 시행이 이

루어졌지만 1961년 실효성 관련 문제가 발생하며 폐지되었다.

서머타임이 가지는 실효성은 에너지 수요를 절감하는데 효과와 관련이 깊다. 그 이유는 1시간을 앞당김으로서 조명수요에 상당한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서머타임을 도입할 경우 일출 직전 활동시간은 1시간이 늘어나고 일몰 이후 활동시간은 1시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아침 조명수요는 1시간이 증가하며 저녁의 조명수요는 1시간이 감소한다. 하지만 보통 아침시간대(오전4~6시)는 집에 깨어있는 사람의 비율이 낮기 때문에 수요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만 저녁시간(오후5시~7시)에는 높은 시간대이기 때문에 이를 통한 전력수요 절감효과가 상당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기대효과에 반해 실효성과 관련된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2001년 캘리포니아 에너지 위원회의 한 보고서에 따르면 서머타임이 총 전력수요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분석했고 최근에는 오히려 전력 소비를 높인다는 연구가 나오고 있다. Kotchen에 따르면 서머타임으로 인한 낮 시간대 조명기기의 전력수요가 줄어들어서 효과를 볼 수는 있지만, 여름철 무더위로 인한 냉방 수요의 증가로 그 이점을 상쇄했기 때문이라 설명했다.

4. 인공지능과 윤리는 기술의 문제?

최근 인공지능의 윤리적 문제를 사이에 두고 실질적 기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2024년 서울 강남 앙트레블에선 AI 신뢰성 강화를 위한 국제연대 ‘트레인(TRAIN)’이 AI 투명성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김동원, 디지털조선일보). 이날 세미나에서는 AI의 신뢰성 확보 및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서 윤리만을 강조하는 현재 상황을 타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원 TRAIN 추진단장(썩크포비엘 대표)는 환영사에서 “우리는 지금까지 윤리 얘기는

충분히 전해 들었다”며 “도덕적인 얘기는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 근거로 “이미 5년 전에 인공지능 윤리 백서를 발간했고 그동안 충분히 가이드라인 등 AI 윤리에 관한 많은 논의가 이뤄졌으며 윤리는 인류역사상 중요하지 않았던 적이 없다. 다만 이제 기술을 논해야 할 시점이다”라고 강조했다.

이는 AI가 현재 인류에 미치는 위험성을 기술적인 측면에서 예방하고 그렇지 못하는 부분들은 법으로 강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데이터 편향과 관련하여 많은 논의가 이루어졌지만 이를 해결하기 위한 기술을 개발하자는 의견은 논의 되지 못했으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또한 유럽연합 등 전 세계 국가들이 AI 법을 제정하는 만큼 우리도 이에 맞춰 제품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수준에 적합한 기업 기술 및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5. 확장 편향



[그림-1] 확장편향의 대표적 사례 (출처 : 이채완, 동아일보)

믿고 싶은 정보만 찾아서 믿음으로 기존의 신념을 강화하는 것을 확장편향(確證偏向)이라 한다. 한국사회및성격심리학회회는 2023년 12월

심리학과 교수와 범죄심리학 전문가 74명 중 24명이 확장편향이 현재 한국 사회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사회 심리적 현상이라는 학계의 진단이 나왔다. 이러한 현상은 사실이 아님에도 끊임없는 음모론으로 잘못된 지식체계를 형성할 수 있다. 또한 현대사회에서 확장편향이 중요한 사회문제로 인식되는 이유는 확장편향 자체가 무의식적으로 일어나기 쉽기 때문이다. 이는 최근 SNS나 짧은 동영상에서 다량의 정보를 빠르게 인식하고 처리하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비교적 이해하기 쉽고 친숙한 정보를 찾고 이해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최근 유튜브나 SNS는 개개인별 알고리즘이 이런 경향을 더욱이 부추기고 있다. 나아가 ‘사이버 렉카’로 불리는 극우·극좌 성향의 유튜브버들의 왜곡된 정보유출과 수익창출이 현재 상황을 가속화한다. 따라서 최근에는 이러한 문제들이 잠식될 수 있도록 허위 정보를 유포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강력한 처벌법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어릴 때부터 미디어 노출되는 현대사회의 특성상 저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통해 정보를 받아들이는 과정에 대한 훈련이 필요하다.

※ 참고문헌

- <논문 및 단행본>
- 김해인, 2010, 대한전기학회
- 마상영, 2007, 스페인의 전통 웰빙 생활문화와 시에스타(siesta)와의 상관관계 고찰

<인터넷 기사>

- 김동원, 2024, 디지털조선일보
- 안착희, 2024, 중앙일보
- 이채완, 2024, 동아일보